

지

난 8월초 농산물생산자와 소비자 몇분을 모시고 서울시농촌지도소에서 간담회를 주선했던 적이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여러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오갔지만 그래도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소비자측은 농민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농민측은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에서는 기준을 잘 지키니 농산물의 안전성을 믿어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늘 먹고 있는 우리농산물에 대해서까지 불신을 하고 있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고 또 한편으로는 과학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떠밀려 다니는 그릇된 풍토가 아쉬울 뿐이다.

사실, 전에는 농가와 비농가의 사이가 이런식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쌀 한톨, 배추 한포기가 소중한 것이었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슈퍼마켓이나 채소가게에 각종 농산물이 매일같이 쌓여 있는것

을 보면 일반 소비자들은 그렇게 있는것이 당연하며 부족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정말 누가 뭐래도 우리는 '포식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속에 살다보니 소비자의 관심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어 공급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환경이니 잔류니 하는 안전성에만 신경이 과민하리만큼 쏠려있다.

시골에 어찌다 한번 지나가다 농약치는 광경을 보고와서는 매일같이 농약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찌다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결과가 마스크에 보도되면 검출량에는 관계없이 한바탕 소동을 겪어야만 한다.

가로수나 정원에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농약을 살포하는 것에는 그렇게 관대하면서도 같은 약을 농작물에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

모심기를 전후해서 사용하는 제초제가 벼이삭에 잔류할리도 없지만 제초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그 쌀은 위험하다고 가볍게 결론짓는 만연된 사고방식은 분명 첨단과학시대에 살고있는 시대에 걸맞는 사고방식은 아닐 것이다.

편집인 칼럼

미래농업의 발전방향



“환경과 농약 그리고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하나됨을 ...

사실 위험과 안전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에 있고, 선진화된 사회는 위험요소를 억제·예방하고 안전하게 쓰는 기술을 습득해오면서 지금까지 발전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의 번영과 높은 생활수준도 과학의 발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극미량의 농약이 곧 발암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지만 극미량의 존재만 부각시키고 그 물질의 양이나 성질에 대한 독성학적인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것은 과학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 우리는 환경시대에 살고 있다.

환경과 관련된 모임도 많고 단체도 많고 전문가도 많다. 매스컴에서는 매일같이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고 서점에도 각양각색의 환경을 주제로한 책자가 많이 진열되어 있다.

그러나 농약관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환경문제가 한시라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만큼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이유는 농약개발을 위한 연구조건중에 가장 크게 꼽고 있는것이 바로 환경에 대한 안전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농업이 농가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현대농업기술을 전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초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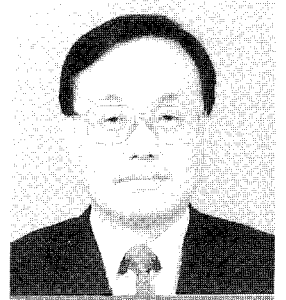
그후 공업화에 따른 농촌인력 감소,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농산물 수요의 다양화 및 증가에 따라 생산성 높은 농업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결국 이와같은 필요성에 부응한 농업기술의 개발과 농자재산업의 성장에 따른 농약을 비롯한 농자재의 원활한 공급등이 70년대 쌀 자급을 가능하게 한 녹색혁명을 이루어냈고 80년대 들어서는 채소류의 연중 공급을 가능하게한 백색혁명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제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의 뒤안길에서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여 식량의 젖줄인 농산물의 생산성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가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값이 싼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제경쟁력에서 이길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의 농업여건하에서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함과 동시에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생각이 있어야만 한다. 농업의 장래는 현대농업의 흐름 위에서 가능한 것이지 현대농업을 부정하는 흑백논리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

올해 농사도 돌발변수가 없는한 풍성한 가을이 될 것 같다. 우리토양에서 땀흘려 기꾼 우리농산물에 대한 사랑과 신뢰, 땀흘린 우리 농민, 모두에게 감사할줄 알며 인간의 지혜를 집대성한 정밀화학의 진보에도 찬사를 보내자. **농약정보**



전 은 홍
농약공업협회 상무이사

